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발전협의회		보도자료 2022. 12. 13.(화) 배포		https://blog.naver.com/ k-associationofrip	
보도일	2022. 12. 13.(화)~16일(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발전협의회		홍보담당 임현선	043-903-7405 010-2261-9614	
	사무국			E.mail vivasun5@chungbuk.ac.kr	

“청년×지역 날개를 달다”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3년 성과 담은 다큐멘터리 12월 16일 방송

■ 개요

1) 방송일시 : 12월 16일(금) 밤 10시 50분 ~

2) 방송채널 : KBS 1TV <다큐 온> “청년×지역 날개를 달다”

3) 기획의도 : 지역소멸 시대, ‘내가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은 지역’에서도 좋은 직장을 얻고 정착할 수 있다’는 주제로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우수성과 역동성, 미래 발전 가능성을 우수한 사례들을 통해 보여줌

4) 방송내용 :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꿈을 이루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히는 청년들이 있다. 창원대, 충북대, 서원대 재학생으로 지역기업 현장실습에 참여 중인 인턴들, 지역혁신플랫폼이 운영하는 공유대학 수강생들, 오픈캠퍼스에 참여한 학생들,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20~30대 CEO들이다.

이들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제공한 교육을 받거나 취업 또는 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중이다. 현장실습 기업에서 인턴을 하다가 채용이 확정된 청년도 있다. 그는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굳이 떠날 필요가 있을까?”라고 되묻는다.

올해 3년차를 맞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지역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역과 청년이 만들어가는 상생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사업의 우수 성과를 시청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 본 다큐멘터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발전협의회(회장 홍진태)가 주관하여 제작했습니다. (*RI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약자)



KBS <다큐 ON>
"청년X지역
날개를 달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6일 (금) 밤 10시 50분 KBS1TV
- 연출 : 박기흥
- 글.구성 : 강유정
- 제작사 : 황금나무

‘지역소멸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우려와 위기 속에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꿈을 이루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힌 청년들이 있다!

사회문제가 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의 대안이자
자신만의 길을 찾아 미래 산업의 혁신 인재로 거듭 중인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오늘날, 여전히 많은 지역 청년들의 발걸음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향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인구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49.6%에 달한다. (2022년 3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특히 수도권 유입인구 중, 3/4을 차지하고 있는 20대 청년들. 그들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다면? 지역과 청년이 만들어 가는 상생의 이야기를 담아본다.

- 내가 지역을 떠나지 않은 이유

“지역은 제 인생입니다.
여기서 10대, 20대 동안 청춘을 바쳤기 때문에
정도 많이 가고 이 지역에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 나재철 (26세, 경남 창원)



꿈을 향해 날갯짓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다. 충북 청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한 4학년, 황성연(25) 씨는 학교가 아닌 같은 지역의 한 제약회사로 출근 중이다. 아직은 5개월 차 인턴이지만 원하던 진로에서 일하고 있는 성연 씨는 안정적이고 어엿한 청년이 되어간다.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턴을 선택한 나재철(26) 씨는 전기차 엔지니어를 꿈꾼다. 경남 창원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던 중 같은 지역에 소재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며 꿈을 향해 직진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만든 ‘채용 연계형 실습’을 통해 희망하는 회사에서 실무를 배울 기회를 얻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장을 얻고 앞으로의 인생을 그려나가고자 하는 청년들! 추억과 청춘이 깃든 내 지역의 미래가 있기에, 그곳에서 오늘을 보내고 있는 열정 인턴들을 만나본다.

■ 대학생, 지역 혁신 인재가 되다



“이전에는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꿈꿨었는데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니까
직업이나 삶의 기준이 ‘행복’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 이지은 (25세, 대전광역시)

지역에 인프라와 기회가 부족하다는 건 옛말! 졸업을 앞둔 이지은(25) 씨는 요즘 말로 ‘스펙’이 화려하다. 행정학을 전공한 문과생이었지만, 이제는 ‘과학기술 행정 융복합’이라는 분야까지 섭렵하며 4차 산업의 유망한 인재로 거듭나는 중이다. 대전에서 나고 자란 지은 씨가 같은 지역의 대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전남 나주에는 대학교 3학년인 신현창(25) 씨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정보 보안학과에 다니면서 관련 동아리 활동, 미래에너지신산업 융합전공, 해외 인턴쉽까지. 현창 씨는 단순히 ‘취업’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 주도적인 산업과 가치 지향적인 삶을 내다보고 있다.



한 때 서울에서 취업을 하고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꿈꾸던 두 청년. 그랬던 이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정착을 생각하게 된 건 지역대학, 지역기업, 지자체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지역대학들이 이른바 '공유대학'라는 형태로 배움의 벽을 허물고 진보적인 교육방식을 도입해 지역별로 주력하고 있는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하고자 나선 것이다. 지역과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다양한 시도 덕분에 청년들은 지역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꿈꾼다.

■ 지역에도 기회와 미래가 있다



과연 청년들은 유년과 학창시절을 보낸 정들고 익숙한 곳을 정말 떠나고 싶은 걸까? 지역에 머물며 곁에 가족과 친구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다. 고현중(25) 씨는 지역혁신 기업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으로 근무하던 지역 기업에 정직원으로 채용됐다. 만족스런 근무조건, 편안한 출퇴근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죽마고우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에 지역 기업에 취업하길 잘했다고 말한다.



“제가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제 옆에 친구들과 가족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 김대운 (26세, 전남 나주)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도 있다. 김대운(26) 씨는 스타트업 대표이다. 지역 대학의 정보보안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과 친구와 소프트웨어 운영서버를 개발하는 회사를 차렸다. IT 관련 회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지만 대운 씨는 지역에 남기로 했다. 청년 창업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혜택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 선 대운 씨에게 큰 힘이 됐다. 그래서 함께 할 친구와 자신의 기술만 있다면 정든 곳을 떠나지 않아도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



KBS 다큐온 <청년X지역 날개를 달다> 편은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KBS1에서 만날 수 있다.

※ 다큐온 프로그램정보



기획 의도	전 지구적 격변의 시대, 거품처럼 쉽게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들에 머리가 어지럽다. 하지만 변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변치 않는 화두다. 핵심은 변화의 방향! 현상들 속에서 시대를 선도할 주된 흐름은 무엇이고, 지켜야할 가치는 무엇일까. ‘다큐온’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온:) 이야기를, 갓 지은 밥처럼 따뜻하고 영양이 풍부하게 만들어(溫),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점에(ON) 전달한다.	
방송 정보	KBS 1TV 매주 금요일 밤 10시 50분	
제작진	책임 프로듀서 프로듀서	손중호 임세형, 송철훈, 최용수

□ **사업 목적**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

□ **개요**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총 6개

지자체	핵심분야	대학	지역 혁신기관
광주·전남 (‘20년 선정)	■ 에너지신산업 ■ 미래형운송기기	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	383개
울산·경남 (‘20년 선정)	■ 스마트제조/연차/니어링 ■ 스마트제조 ICT ■ 스마트공동체 ■ 미래모빌리티 ■ 저탄소 그린에너지	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	140개
충북 (‘20년 선정)	■ 제약바이오 ■ 정밀의료·기기 ■ 화장품·천연물	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	188개
대전·세종·충남 (‘21년 선정)	■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 모빌리티 ICT	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	141개
강원 (‘22년 선정)	■ 정밀의료 ■ 디지털헬스케어 ■ 스마트수소에너지	강원대(총괄), 연세대 미래(중심), 강릉원주대(중심) 등 15개 대학	60개
대구·경북 (‘22년 선정)	■ 전자정보기기 ■ 미래차전환부품	경북대(총괄), 영남대(중심) 등 23개 대학	214개

- (지원내용)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기반(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의 첨단·핵심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혁신, 대학-산업 간 협업과제 수행 등 지원
 - 지역의 핵심분야는 지자체·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주력산업, 지역현안 등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소수 선정
 - 핵심분야 선정, 참여대학 및 기관의 범위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전(全) 과정에서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